

# 세계 FDI 동향 및 전망

(2022. 8.)

## 목 차

I. 개요

II. 선진국 FDI 유입 동향 (2021)

III. 개도국 FDI 유입 동향 (2021)

IV. 최빈국 등 FDI 유입 동향 (2021)

V. FDI 유형별 동향 (2021)

VI.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

VII.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FDI 영향

VIII.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동향

해 외 경 제 연 구 소

지 식 경 제 팀

※ 본 보고서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2('22년 6월)을 발췌·요약

## I . 개요

### 1 세계 FDI 유입 동향 (2021)

- **[전체]**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이하 “FDI”)는 전년(약 1조불) 대비 64% 증가한 1.58조불 시현
- 저금리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에 따른 M&A 및 PF 활성화,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이 주요 원인

#### 세계 FDI 유입 추이

(억불)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 자 액	20,454	16,326	14,483	14,806	9,631	15,823

- **[소득그룹별]** '21년 모든 그룹에서 FDI 유입액은 회복세를 보임
- **[선진국]** 전년도 2배 이상인 7,457억불을 시현하였으며, 주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M&A 거래 급증 등에 기인
    - 코로나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회복수요 증가, 저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정부지원 확대는 다국적기업의 수익성\* 확대에 기여
      - \* 상위 5,000여개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매출액의 8% 이상 시현
    - 다국적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 PF, M&A에 적극적으로 투자(각각 68%, 43% 증가)

- **[개도국]** 전년 대비 30% 증가한 8,366억불을 시현, 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기인
  - **[아시아]** 6,190억불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갱신중
  -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45억불 시현
- **[최빈국 등\*]** 전년 대비 15% 증가한 390억불을 시현하였으나, 비중은 '21년 전세계 FDI 총 유입액의 2.5%를 차지하여 전년도 3.5% 대비 감소
  - \* 최빈국(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
  - 내륙국(LLDCs ;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 군소도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지역별 FDI 유입 추이

(억불)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선진국	13,848	9,377	7,533	7,645	3,192	7,457
유럽	7,944	5,133	3,980	4,048	808	2,190
북미	4,955	3,317	2,409	2,753	1,740	4,271
기타	949	927	1,144	844	644	997
개도국*	6,606	6,950	6,950	7,162	6,439	8,366
아시아	4,781	5,014	4,969	5,116	5,189	6,190
중남미	1,362	1,535	1,520	1,587	862	1,345
아프리카	462	402	454	457	390	830
기타	△0	△1	7	1	△1	1
전세계	20,454	16,326	14,483	14,806	9,631	15,823

\* 최빈국·내륙국·군소도서국 포함

## 2 세계 FDI 유입 전망 (2022)

- 우크라이나 전쟁發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타격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로 FDI 유입규모는 축소 전망
- 다만,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집행, 다국적 기업들의 여전한 투자동력\*,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딘 일부 EU 국가들의 투자 확대 가능성 등은 FDI 감소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음
  - \* '22. 1~4월 선진국 M&A: 2,850억불(전년 대비 39% 증가)
- '22.1분기 그린필드 및 PF 추진 건수는 각각 21%, 4% 감소하는 등 '21년 급증한 FDI 모멘텀은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

### < 우크라이나 전쟁의 FDI 영향 >

- 우크라이나 전쟁은 SDGs와 경제발전 관련 국제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 에너지·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 투자 불확실성에 직면
  -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러시아 소재 FDI 자산 동결\* 등 타격이 불가피
- \* 주요기업 자산동결 규모: Fortum(핀란드) 326억불, Renault(프랑스) 159억불, BP(영국) 144억불, TotalEnergies(프랑스) 137억불, Exxon Mobil(미국) 75억 불 등
- ※ 전쟁 발발 후 주요 다국적기업(MNEs) 2022년 이익전망치 수정
  - (상향 조정) 에너지, 광산, 오일 가스 등
  - (하향 조정) 항공, 제조, 건설업 등

## II. 선진국 FDI 유입 동향 (2021)

□ 전년 대비 134% 증가한 7,457억불 시현(전세계 FDI의 약 50% 차지)

- 미국, 비EU 유럽국가 등 EU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FDI는 증가하였으며,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실행, 다국적 기업의 이익잉여금 및 M&A 증가 등에 기인

- **[미국]** 전년 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3,674억불 시현. 이익잉여금 및 M&A\* 확대 등에 기인(그린필드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860억불)

\* (세부업종별) 정보통신업(430억불), 무역업(400억불), 운송저장업(370억불), 금융보험업(300억불)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M&A 규모는 2,000억불에 달함.

(기업별) '21년 100억불 이상 M&A 18건 중 9건이 미국에서 발생. 아스트라제네카(英)의 Alexion 인수(390억불), AerCap(아일랜드)의 GE Capital Aviation 인수(310억불) 등

- **[캐나다]** 팬데믹 이전 10년간 연평균 FDI의 30%를 상회하는 597억불 시현(전년 대비 157% 증가). 주로 이익잉여금('20년 30억불 → '21년 290억불) 및美기업과의 M&A\* 증가에 기인

\* (세부업종별) 추출산업 70억불, 서비스업 145억불, 정보통신업 70억불, 금융보험업 40억불

- **[이스라엘]**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여 296억불 시현. 특히, M&A는 220억불을 시현하였으며, 절반 이상은 정보통신업\*에서 발생

\* 미국 Thoma Bravo의 이스라엘 Iron source 社 인수(100억불) 등

- **[영국]** 전년 대비 51% 증가한 276억불 시현. 지분투자 및 M&A\*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

\* 미국 Jazz Pharmaceuticals 社의 영국 GW Pharmaceuticals 社 인수(68억불) 등

- **[EU]** '97년도 이래로 가장 낮은 1,380억불 시현. 이는 M&A (1,878억불→1,390억불) 및 지분투자(2,200억불→△42억불) 감소 등 영향으로 일부 국가\*의 순유출 발생에 기인
  - \* 네덜란드('20년 △1,050억불 → '21년 △810억불), 룩셈부르크('20년 1,020억불 → '21년 △90억불)
- **[호주]** 전년 대비 50% 증가한 251억불 시현. 특히, 식음료업종의 대규모 M&A\*가 주요인
  - \* 영국 코카콜라 유럽 파트너스의 호주 코카콜라 Amatil 지분 취득(52억불)

### III. 개도국 FDI 유입 동향 (2021)

#### 1 아시아

□ FDI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중이며, 전년 대비 19% 증가한 6,190억불(전 세계 유입액의 약 40%) 시현. 상위 6개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UAE, 인도네시아)이 아시아 전체 유입액의 80% 차지

○ **[동아시아]** 전년 대비 16% 증가한 3,290억불 시현

- **[중국]** 전년 대비 21% 증가한 1,810억불 시현, 증가추세 지속중. 주로 서비스업과 첨단산업\* 분야 투자증가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지속 전망

\* 대만 TSMC社의 중국 차량반도체 생산시설 투자(28억불)

- **[홍콩]** 전년 대비 4% 증가한 1,407억불을 시현하였으며, 주로 이익잉여금(1,080억불) 증가에 기인

○ **[동남아시아]** 전년 대비 44% 증가한 1,750억불 시현.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 **[싱가포르]** 역대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M&A\* 확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991억불 시현. 그린필드 투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등으로 130억불 시현

\* Altimeter Growth Co.(미국)의 Grab 인수(340억불)

\*\* Global Foundries(UAE)의 싱가포르 생산시설 투자(40억불)

- **[말레이시아]** 반도체칩 생산시설\* 관련 그린필드 투자 급증으로 전년 대비 270% 증가한 116억불 시현

\* 미국 인텔社 70억불, 오스트리아 AT&S社 21억불

- **[서아시아]** 주로 M&A 증가에 따라 전년도 350억불에서 59% 증가한 550억불 시현
- **[UAE]** 역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전년과 유사한 207억불 시현
- **[사우디]** 전년도 54억불에서 260% 증가한 193억불 시현
- **[튀르키예]** '19, '20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1년 지분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125억불 시현
- **[남아시아]** '20년은 M&A 급증으로 평년 대비 FDI 규모가 컸으나, '21년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520억불 시현
- **[인도]** 전년 대비 30% 감소한 447억불 시현. 분야별로는 신재생 분야, 유형별로는 PF 투자\*건이 증가
  - \* 일본 닛폰철강社 철강 시멘트 공장건설(135억불), 스즈키 모터社 생산공장 건설 24억불 등
- **[중앙아시아]** 전년 대비 12% 증가한 70억불 시현. 카자흐스탄 32억불(↓14%), 우즈베키스탄 20억불(18% ↑), 투르크메니스탄 15억불(24% ↑) 등

## 2 중남미

-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45억불 시현. 산업별로는 자동차, 금융보험,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업 투자비중이 높음.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및 PF는 증가(각각 16%, 2배), M&A는 유사
- **[남아메리카]** 전년 대비 74% 증가한 880억불 시현
  - **[브라질]** 전년 대비 78% 증가한 504억불 시현. 주로 농업, 자동차, 전자제품, 정보통신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유입됨. 그린필드\*와 PF 투자건수는 각각 35%, 32% 증가
    - \* 미국 Bravo Motor社 전기차 생산시설 건설(44억불)



- [콜롬비아] 제조업, 교통, 운송업 및 통신서비스 분야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6% 증가한 90억불 시현
- [아르헨티나] 광산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65억불을 시현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 [중앙아메리카]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0억불 시현
- [멕시코] 광업, 오일·가스업, 자동차 제조업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316억불 시현. 그린필드 투자는 정보통신업\*에서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
  - \* 중국 화웨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45억불)
- [카리브해] 전년 대비 39% 증가한 38억불 시현. 광업, 금융업 투자 증가로 31억불 시현한 도미니카 비중이 높음.

### 3 아프리카

- 전년도 390억불 대비 113% 증가한 830억불 시현(전 세계 유입액의 5.2%). 유형별로 그린필드는 390억불(전년 320억불)을 시현하였으나 코로나 이전('19년 770억불) 대비 낮은 수준이며, PF\*는 전년 360억불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1,210억불 시현
  - \* 호주 CWP社의 모리타니 그린 프로젝트 투자(400억불) 등 에너지(560억불), 신재생(260억불) 위주
- [북아프리카] 전년 대비 5% 감소한 93억불 시현
- [이집트] FDI 유입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오일·가스의 탐사·생산 관련 지속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12% 감소.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대비 3배 증가한 56억불 시현
  - \* UAE Reportage Properties社의 이집트 부동산 투자(15억불) 등

- **[서아프리카]** 전년 대비 48% 증가한 140억불 시현
  - **[나이지리아]** 오일·가스업 앞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48억불 시현. PF는 산업·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급증한 70억불 시현
    - \* Escravos 항구건설 프로젝트(29억불) 등
  - **[가나]** 채굴업\*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9% 증가한 26억불 시현
    - \* 미국 뉴몬트社 금광투자(8.5억불), 모코로 d'Afrique社 시멘트 공장 건설(4.4억불) 등
- **[동아프리카]** 전년 대비 35% 증가한 82억불 시현
  - **[에티오피아]** 중국의 투자\*가 3배 증가하며, '21년 43억불 시현. PF사업의 약 80%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임.
    -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의 허브로서 기능
    - \*\* 아부다비 Future Energy社의 500MW 태양력발전소 건설(1.4억불)
  - **[탄자니아]** 전년 대비 35% 증가한 9.5억불 시현. 특히, 그린필드 투자액은 3배 증가
    - \* 영국 British Foods社 식음료부문 투자(2.4억불), 영국 카방아 니켈 프로젝트(3.2억불)
- **[중앙아프리카]** 전년도와 유사한 94억불 시현
  - **[콩고]** 오일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8% 감소한 37억불 시현
    - \* 중국의 오일 생산시설 건설 투자(1.7억불)
- **[남아프리카]** 남아공내 대규모 기업 지분구조 변경\*(corporate reconfiguration)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420억불 시현
  - \* Naspers사와 Prosus사 간의 주식교환

## IV. 최빈국 등 FDI 유입 동향 (2021)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내륙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군소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속하는 총 82개국의 '21년 FDI 유입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90억불 시현.(글로벌 총 FDI의 2.5% 수준으로 전년 3.5% 대비 비중 축소)

### 1 최빈국

- 전년 대비 13% 증가한 260억불을 시현하였으며, 상위 5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세네갈)이 동 그룹 유입액의 69% 차지
  - **[아프리카]** 33개국 유입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60억불, 상위 5개국 앞 FDI 유입액이 10억불 이상을 차지
    - **[모잠비크]** 그린필드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51억불 기록
      - \* 영국 Globeleq Generation社 파워플랜트 건설(20억불)
    - **[잠비아]** 구리광산 투자 회수\*에 따라 전년에 이어 순유출 △4.6억불 기록
      - \* 스위스 글렌코어社 잠비아 국유투자회사 앞 매각(15억불)
  - **[아시아]** 9개국 유입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98억불 기록
    - **[캄보디아]** 그린필드 투자액이 전년도 16억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2억불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4% 감소한 35억불 기록
    - **[방글라데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억불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특히, PF 투자\*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4건, 투자액은 47억불 기록
      - \* Ananda Bazar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20억불) 등

## 2

## 내륙국

- 전년 대비 31% 증가한 180억불 시현. 상위 5개국(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유입액의 71% 차지
- 중앙아시아 제외한 전 지역(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유입액 증가
- **[아프리카]** 전년 대비 53% 증가한 78억불로서 내륙국 총 유입액의 53% 차지. 주요 유입국으로는 우간다(11억불), 말리(6.6억불) 등
- **[중남미]** 볼리비아(7.2억불), 파라과이(5.9억불) 등
- **[아시아]** 전년 대비 6% 감소한 91억불 시현. 카자흐스탄(32억불), 몽골(21억불) 등

## 3

## 군소도서국

- 전년 대비 17% 증가한 33억불 시현. 상위 5개국(몰디브, 피지, 바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리셔스)이 동 그룹 유입액의 56% 차지
- **[카리브해]** 바하마(3.6억불), 트리니다드토바고(3.4억불) 등 10개국 유입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7억불 기록
- **[아시아]** 몰디브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4.4억불 시현. 티모르는 '21년 대규모 투자유입\* 발생
  - \* 티모르해 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이태리, 호주, 한국, 일본 합작투자 (16억불)
- **[아프리카]** 모리셔스 2.5억불(13% ↑), 세이셸 1.6억불(28% ↑) 등 5개국 유입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9억불 시현
- **[오세아니아]** 피지 4.0억불\*(67% ↑) 등 11개국 유입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5.2억불 시현
  - \* 싱가포르 Sevens Pacific社의 피지국유회사 Energy Fij이 앞 지분투자(2.1억불) 등

## V. FDI 유형별 동향 (2021)

### 1 그린필드 투자 동향

□ 그린필드 전체 투자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590억불 시현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투자액은 각각 4,000억불, 2,590억불임.

○ **[산업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각각 23%, 8% 증가하였으며 농업 투자 비중\*은 감소 추세

\* '03년 24%, '16년 7%, '21년 2% 미만

- 반도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투자 증대로 전자기기제조업은 1,200억불 기록. 전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로 정보통신업 투자 또한 증가

#### 그린필드 투자 산업별 동향

(십억불)

산 업	투자액		증감률(%)	투자건수		증감률(%)
	2020	2021		2020	2021	
전 체	575	659	15	13,248	14,710	11
전 자 기 기 제 조 업	47	120	156	882	1,028	17
정 보 통 신 업	85	104	23	2,962	3,743	26
전 기 가 스 공 급 업	103	90	△13	546	484	△11
건 설 업	33	49	49	320	329	3
자 동 차 제 조 업	33	34	3	571	692	21
운 수 창 고 업	27	33	25	639	737	15
화 학 제 품 제 조 업	40	28	△30	452	445	△2
도 소 매 업	23	24	4	580	638	10
식 음 료 업	18	19	9	432	431	0
의 약 품 제 조 업	15	19	26	360	378	5
기 타	151	139	△8	5,504	5,805	5
농 업	11	13	15	100	98	△2
제 조 업	240	297	23	5,258	5,688	8
서 비 스 업	323	350	8	7,890	8,924	13

## 2 PF 투자 동향

□ PF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115건이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투자 건수의 3배에 달함. 투자액 역시 최초로 1조불을 돌파하는 등 증가추세

- **[산업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총 투자 건수의 절반 이상 차지
  - '21년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5,020억불 시현
    - \* 미국·룩셈부르크·호주 공동 호주 50GW 신재생에너지 허브구축 프로젝트 (740억불) 등 100억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6건 추진
  - 이외 투자액 상위 산업은 오일·가스\* 1,390억불(131% ↑), 산업용 부동산\*\* 1,350억불(160% ↑) 등 順
    - \* 이라크 1,700km 오일 파이프라인 건설(180억불) 등
    - \*\*인도 철강·시멘트 제조공장(140억불), 베트남 제약바이오 사이언스 파크(100억불) 등

### PF 투자 산업별 동향

(십억불)

산	업	투자액		증감률(%)	투자건수		증감률(%)
		2020	2021		2020	2021	
전	체	484	1,188	146	1,262	2,115	68
	신 재 생 에 너 지 업	198	502	154	802	1,193	49
	산 업 용 부 동 산 업	52	135	160	52	152	192
	주 거 용 부 동 산 업	13	30	137	45	143	218
	광 업	21	39	88	65	109	68
	발 전 업	30	116	293	55	109	98
	석 유 가 스 시 추 업	60	139	131	71	102	44
	통 신 업	42	61	45	52	92	77
	교 통 인 프 라 업	41	49	20	52	90	73
	석 유 화 학 업	19	90	370	25	59	136
	상 하 수 도 업	3	9	176	21	18	△14
	기 타	5	18	260	22	48	118

## 3

## M&amp;A 투자 동향

□ 전년 대비 53% 증가한 7,280억불을 시현하였으며, 이 중 선진국 M&A는 북미에서의 3배 이상 증가에 힘입어 6,150억불 시현

○ **[산업별]** 서비스업은 4,610억불로 역대 최고치 달성. 제조업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2,390억불이나, 농업은 280억불로 비중이 낮음.

- 정보통신업\*과 제약\*\* 부문은 팬데믹 수혜업종으로서 M&A가 큰 폭으로 증가

\* 미국 알티미터 그로스社의 싱가포르 그랩社 인수(340억불)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미국 알렉시온社 인수(390억불)

## M&amp;A 투자 산업별 동향

(십억불)

산	업	투자액		증감률(%)	투자건수		증감률(%)
		2020	2021		2020	2021	
전	체	475	728	53	6,201	8,846	43
	정 보 통 신 업	80	136	69	1,248	2,114	69
	의 약 품 제 조 업	56	73	31	211	223	6
	금 융 보 험 업	28	72	157	562	733	30
	도 소 매 업	18	63	255	495	663	34
	운 수 창 고 업	7	53	651	224	324	45
	자 동 차 제 조 업	17	42	144	41	81	98
	전 문 서 비 스 업	11	41	268	447	689	54
	전 자 기 기 제 조 업	40	38	△4	165	311	88
	부 동 산 업	22	35	57	327	420	28
	행정지원서비스업	6	28	413	206	303	47
기	타	190	147	△23	2,275	2,985	31
농	업	25	28	11	658	639	△3
제	조 업	228	239	5	1,136	1,674	47
서	비 스 업	221	461	108	4,407	6,533	48

— < 참고: 선진국 투자유형별(FDI 포함) 동향 > —

- **[그린필드]** '21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4,000억불.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9% 증가한 2,150억불 시현, 제조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1,790억불, 정보통신업은 680억불로 증가세 유지  
\* 미국 Intel社의 독일 반도체 공장 신설(190억불), 한국 Samsung社의 미국 반도체 공장 신설(170억불)
- **[PF]** '21년도 투자건수는 1,262건으로 증가세 유지. 투자규모는 6,560억불로 두배 이상 증가. 지속가능 및 기후변화(저탄소 등) 관련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비중 증가
- **[M&A]**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증가로 인해 '21년도 투자액 및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8% 및 47% 증가한 6,150억불 및 7,838건 시현. '22년 4월까지의 M&A로 인한 투자유입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850억불로, 이 중 1/3인 870억불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추출산업에서 발생



## VI. 외국인투자 정책 동향

### 1 외국인투자 규제 및 투자촉진 정책 동향

- '21년 도입 외국인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09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
    - '20년 팬데믹 확산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확대되었으나, '21년 팬데믹 안정화에 따라 관련 정책 감소
    - **[규제정책]** 전년 대비 도입건수는 감소(50개→40개)하였으나,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 주로 선진국이 수립·운용
      - 주로 국가안보 또는 주요 인프라 외국인 소유권 제한 등과 관련되며, 규제 강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
    - **[촉진정책]** 전년 대비 도입건수는 감소(72개→55개)하였으며, 비중은 50% 기록
    - **[중립정책]** 전년 대비 도입건수는 53% 감소한 14개 기록
  - 개발도상국은 FDI 유입에 따른 국내투자 구축효과 등 역기능과 경제 활성화 촉진 등 순기능을 감안하여 국별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
    - **[규제정책]** 자국 전략산업에 속한 중소기업 보호조치 등 자국 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촉진정책]** 코로나發 경제위기 극복 및 FDI 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 촉진정책 시행
      -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특구(SEZ\*) 설립, 세제혜택 제공 등
- \* Special Economic Zone

## 2

##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 영향

---

- '22년 1분기 도입된 투자관련 정책의 70%는 서방국가의 對 러시아 제재 및 이에 반발한 러시아의 역제재와 관련됨.
- **[규제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동우크라이나의 무정부 지역
- **[규제 범위]** FDI 금지 및 제한 등 직접적 조치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외거래 제한, 금융 규제, 해외자산 동결 및 무역·이동 제한, 여행금지 등 간접적 조치 포함

## VII.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FDI 영향

### 1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개요

- **[도입 개요]** '21.10월,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행위 및 소득이전(BEPS\*) 방지를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참여국 136개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짐.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 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발생 국가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도입시기는 최초 '23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합의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 등 감안하여 '24년으로 연기

- **[과세 방안]** 과세원칙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양대축 접근법(two pillar approach) 발표

- **[Pillar I]**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창출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 정부에 배분

\*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 후 산정된 이익률

- **[Pillar II]** 연결매출액이 750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을 최저한세로 과세

- 해당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과세

- **[도입 영향]** 세금증가에 따라 FDI 전체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세율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FDI의 국별이동 발생 전망
  - **[FDI 감소]** 세금증가는 기업의 FDI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전세계 FDI는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전환효과]** 국가간 세율차이 감소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이동 가능성이 있음.
- **[현황 및 대응]** 기존 세제혜택이 가지던 투자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각국은 FDI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 이외의 투자 인센티브(규제 혁파 등) 제공을 통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많은 국가의 투자정책 입안자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
    - \* UNCTAD의 IPA(투자진흥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은 필라II 시행에 대해 무지하며, 1/4은 관련 영향 분석이 시작단계라고 응답
  - **[대응방안]**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 최저한세 도입은 가속상각, 손실이월공제 등 재정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에는 별 영향이 없으나, 면세기간(tax holidays) 및 세금면제(exemption) 혜택은 효력이 상실
- 투자정책 입안자·협상 전문가 등은 국가간 투자협정(IIA)\*과 Pillar I·II 관련 규정간 충돌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분석·조정 필요
  - \*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 \*\*투자 유치국과 투자국간 조세감면 등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권이 투자국으로 귀속될 수 있어,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과세수입을 상실하면서도 투자유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발생

## VIII. 지속가능 금융 시장 동향

### 1 지속가능 펀드·채권 시장 동향

- **[지속가능 금융]** '21년 지속가능 금융(펀드·채권) 누적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5조 2천억불로 지속 성장중
  - **[지속가능 펀드]** '21년 운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2조 7천억불 기록
    - 선진국 비중이 높으며, 타국대비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시장이 성숙한 유럽 비중(81%)이 압도적
    - 글로벌 펀드마켓의 약 4%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미미한 바, 향후 시장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및 규제정비\*** 등 필요
      - \* 지속가능 펀드 여부 등을 평가하는 공통기준이 부재하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일부 펀드의 Green-washing(친환경 이미지로 세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속가능 채권]** '21년 신규 발행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여 1조불 기록
    - '21년 누적 발행잔액은 2조 5천억불에 근접하며,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짐.
- **[시장참여자 역할]** 각 금융시장 참여자는 지속가능 금융 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연기금·국부펀드) ESG관련 이슈(2050 탄소중립 등)가 펀드 투자전략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증권거래소) ESG 관련 의무이행사항 및 우대조치\* 확대에 대응하여 발행인 앞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성평등 관련 투자상품 지원, 여성의 금융시장 접근성 확대

## 2 관련 정책 및 기구 동향

□ 전세계 GDP의 약 93%를 차지하는 국가의 지속가능 금융정책 시행건수가 매년 증가추세('21년 누계 316건)이며, 관련 기구들의 지속가능금융 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 지속 중

-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지속가능금융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ESG 관련 표준공시기준 작업 등 가속화

- [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 GRI\*\*와의 협약 체결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위해 '21.11월 설립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는 국제기구

## 참고 1

## 주요 연도 전세계 FDI 유출입 관련 통계

(십억불, %)

구 분	1990년	2005-200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F D I 유 입	205	1,425	1,448	1,481	963	1,582
F D I 유 출	244	1,464	941	1,124	780	1,708
FDI 유 입 잔 액	2,196	14,605	32,843	36,530	41,728	45,449
FDI 유 출 잔 액	2,255	15,315	31,393	34,496	39,546	41,798
FDI 유 입 수 익	82	1,129	2,199	2,264	1,997	2,193
FDI 유 입 수익률	5.2	9.2	6.5	6.0	4.9	4.9
FDI 유 출 수 익	128	1,243	2,128	2,259	2,041	2,131
FDI 유 출 수익률	8.4	10.5	6.5	6.6	5.4	5.3

\* 금융위기 이전 3개년 평균

## 참고 2

## 2019~2021년 각국 FDI 유입 추이

(백만불)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225,108	1	150,828	1	367,376	1
중	국	141,225	3	149,342	2	180,957	2
홍	콩	73,714	5	134,710	3	140,696	3
싱	가 포 르	106,323	4	75,437	6	99,099	4
캐	나 다	50,149	9	23,176	14	59,676	5
브	라 질	65,386	6	28,318	10	50,367	6
인	도	50,558	8	64,072	8	44,735	7
남아프리카공화국		5,125	46	3,062	53	40,889	8
버지니아제도		39,103	12	39,620	9	39,361	9
러	시 아	32,076	15	10,410	24	38,240	10
멕	시 코	34,411	13	27,934	11	31,621	11
독	일	52,665	7	64,589	7	31,267	12
이 스 라 엘		17,363	22	24,283	12	29,615	13
영	국	45,454	10	18,194	18	27,561	14
스 웨 덴		9,108	35	18,803	16	26,973	15
케이만제도		28,165	17	23,621	13	25,893	16
벨	기 에	1,752	77	11,913	22	25,577	17
호	주	39,406	11	16,726	19	25,085	18
폴	란 드	13,510	28	13,831	21	24,816	19
일	본	13,755	27	10,703	23	24,652	20
아랍에미리트		17,875	20	19,884	15	20,667	21
인도네시아		23,883	18	18,591	17	20,081	22
사우디아라비아		4,563	49	5,399	36	19,286	23
한	국	9,634	33	8,765	27	16,820	24 <sup>주)</sup>
아일랜드		149,433	2	80,871	5	15,702	25
베	트 남	16,120	24	15,800	20	15,660	26
프	랑 스	28,363	16	4,870	37	14,193	27
칠	레	15,231	25	9,637	25	12,719	28
튀르키예		9,594	34	7,821	28	12,530	29
말레이시아		7,813	39	3,160	52	11,620	30

주) 버지니아제도,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 제외시 2021년 기준 세계 22위 FDI 유입국



### 참고 3

### 2019~2021년 각국 FDI 유출 추이

(백만불)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미	국	28,596	13	234,919	1	403,101	1
독	일	137,293	2	60,624	6	151,690	2
일	본	232,627	1	95,666	5	146,782	3
중	국	136,905	3	153,710	2	145,190	4
영	국	△6,081	-	△65,363	-	107,741	5
캐 나 다		79,389	4	46,527	7	89,874	6
홍	콩	53,202	6	100,715	4	87,450	7
러 시 아		22,024	15	6,778	25	63,602	8
아 일 랜 드		32,083	11	△44,997	-	61,979	9
한	국	35,239	8	34,832	10	60,820	10
싱 가 포 르		55,607	5	31,758	11	47,395	11
벨 기 에		△3,371	-	10,588	20	45,624	12
버 지 니 아 제 도		44,154	7	42,280	9	43,217	13
네 델 란 드		16,313	20	△191,397	-	28,861	14
룩 섴 부 르 크		△2,576	-	102,624	3	25,398	15
사 우 디 아 라 비 아		13,547	22	4,911	28	23,860	16
브 라 질		19,031	18	△12,935	-	23,083	17
아 랍 에 미 리 트		21,226	16	18,937	15	22,546	18
텐 마 크		16,843	19	10,899	18	22,399	19
케 이 만 제 도		31,630	12	10,835	19	21,232	20
스 웨 덴		16,100	21	23,687	12	20,347	21
태	국	10,395	28	18,999	14	17,303	22
인	도	13,144	23	11,109	17	15,522	23
칠	레	9,879	29	2,329	39	12,220	24
이 탈 리 아		19,787	17	△1,856	-	11,759	25
오 스 트 리 아		12,509	25	△2,400	-	10,781	26
대	만	11,783	26	11,500	16	10,108	27
이 스 라 엘		8,690	31	6,375	26	9,713	28
호	주	9,858	30	9,935	21	9,224	29
몰	타	6,960	32	7,122	24	7,247	30